

주요 내용

1. [이주민의 종교실태 조사]
국내 이주민, 한국에서 전도 받은 적 없다, 71%!
2.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 1) 한국인의 이주민 인식
 - 2) 맞벌이 vs 비맞벌이 가구 비교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국내 이주민, 한국에서 전도 받은 적 없다, 71%!

지방 중소도시에 가면 피부로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참 많다. 세계화의 시대에 이주민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인데 행정안전부의 최근 ‘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자료를 보면 작년 기준 한국 내 이주민은 21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우리나라 전체 인구(통계청)가 5,160만 명이니 대한민국 인구의 약 4% 정도를 차지하는 셈이다. 이주민은 대체로 한국 사람들이 기피하는 산업의 노동에 종사한다. 중소기업 공장 노동자, 건설 노동자, 식당 노동자 등등. 그래서 이들의 삶은 고단하고 애환으로 가득 차 있다.

이번에 우리 연구소는 전국 시,군,구 중 이주민이 가장 많은 ‘안산’(9만 4천 명) 지역의 이주민을 대상으로 안산제일교회와 공동으로 그들의 종교실태조사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 연구는 많지만 본격적인 종교실태조사는 별로 없는 상황에서 이번 조사는 이주민 선교 전략 수립에 있어 큰 의미를 갖는다.

주요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8%만이 개신교이고, 66%가 현재 종교가 없는 상태이며, 71%가 한국에서 전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주민에 대한 전도 전략이 시급해 보인다. 이번 조사 자료가 이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데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면서 <넘버즈 171호>의 주요 내용으로 다룬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주민의 종교실태 조사

본 조사는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 코로나로 인해 선교지에서 비자발적으로 철수하는 선교사가 늘어나는 현실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하였다. 한국교회에 요구되는 새로운 전도 및 선교 전략 파악을 위한 기초 조사라고 볼 수 있다.

안산제일교회와 목회데이터연구소는 안산시 10개 국적의 455명의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본국에서의 종교 생활과 한국에서 현재 믿는 종교, 종교 만족도 등 종교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번 자료가 한국교회에게 다문화 가정 및 이주민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이주민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는 지표가 되길 바란다.

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 조사 대상	안산시 및 인근지역 거주 이주민
• 조사 방법	안산시 이주민 상담센터에 방문한 10개 국적의 이주민들에게 상담센터에 근무하는 자국민 상담원의 지도하에 설문지 자기 기입식 조사 실행
• 표본 규모	총 10개 국가 455명 (유효 표본) *국가 선정 근거 : 안산시 외국인 거주민 비율이 높은 10개 국가 선정 (중국,우즈베키스탄,러시아,카자흐스탄,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네팔,캄보디아,태국)
• 가중치 적용	국적 등록 외국인 현황 기준 비례할당 및 가중치 적용*
• 조사 기간	2022년 7월 4일 ~ 8월 22일(50일간)
• 조사 의뢰 기관	안산제일교회
• 조사 결과 분석/ 보고서 작성	목회데이터연구소
• 조사 수행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가중치 부여

: 2021년 시군구별 및 국적(지역)별 등록외국인 현황을 기준으로 지역/성/연령별 비례할당했으며 조사 완료 후 아래와 같이 가중치를 부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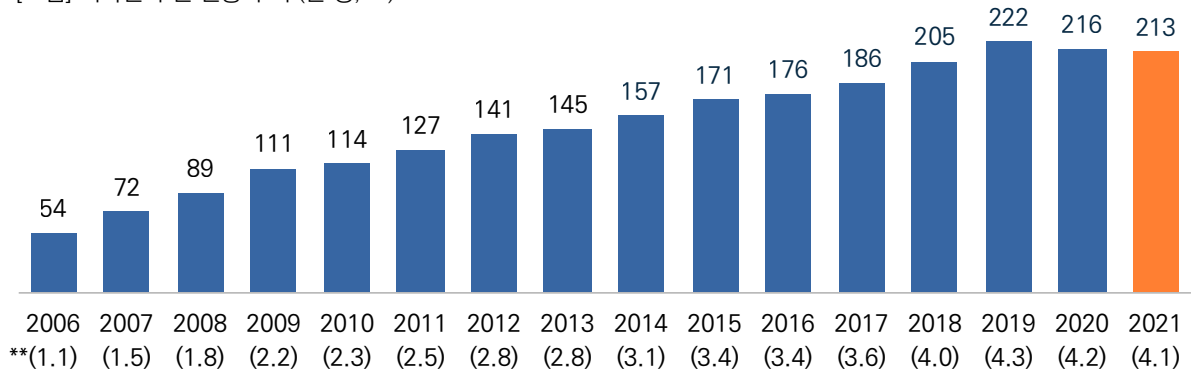
- 1) 2021년 시군구별 및 국적(지역)별 등록인 현황 기준으로 비율표 작성
- 2) '1)'에서 산출된 비율을 기존 데이터에 적용해 가중치 산출 및 부여

01

국내 이주민, 작년 213만 명으로 2006년 조사 이래 4배 증가!

- ▶ 행정안전부가 집계하는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2021년 11월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의 규모는 21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황 발표를 시작한 2006년 대비 4배 정도 증가한 수치이나, 코로나 19가 시작된 2020년부터는 외국인 입국의 어려움으로 인해 약간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그림] 외국인 주민 현황 추이 (만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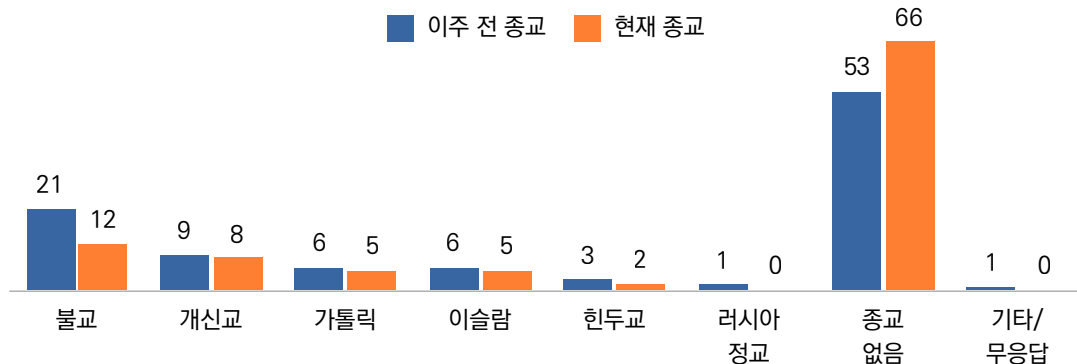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보도자료, 2022.10.31
 ** () 안의 비율은 총 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중임

02

이주민의 한국 내 개신교인 비율 8%!

- ▶ 이주민들이 한국에서 믿는 종교는 개신교가 8%로 불교(12%)에 이어 2위 종교로 나타났다.
- ▶ 불교가 높은 이유는 불교가 가장 큰 종교인 중국 출신 이주민이 전체 이주민 가운데 66%(안산시 외국인 주민 현황, 2021.12)를 차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 ▶ 흥미로운 것은 한국에 오기 전과 후를 비교하면 무종교인이 늘어나고 각 종교인 비율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종교가 사회의 지배 문화이자 규율로 강제되는 본국에서 벗어나 종교적으로 자유롭게 된 것이 원인이라는 해석(탈 종교화), 그리고 한국에서 일상의 삶이 힘든 나날을 지내면서 종교적 신앙심이 약한 사람들이 종교를 멀리하게 된 것이 원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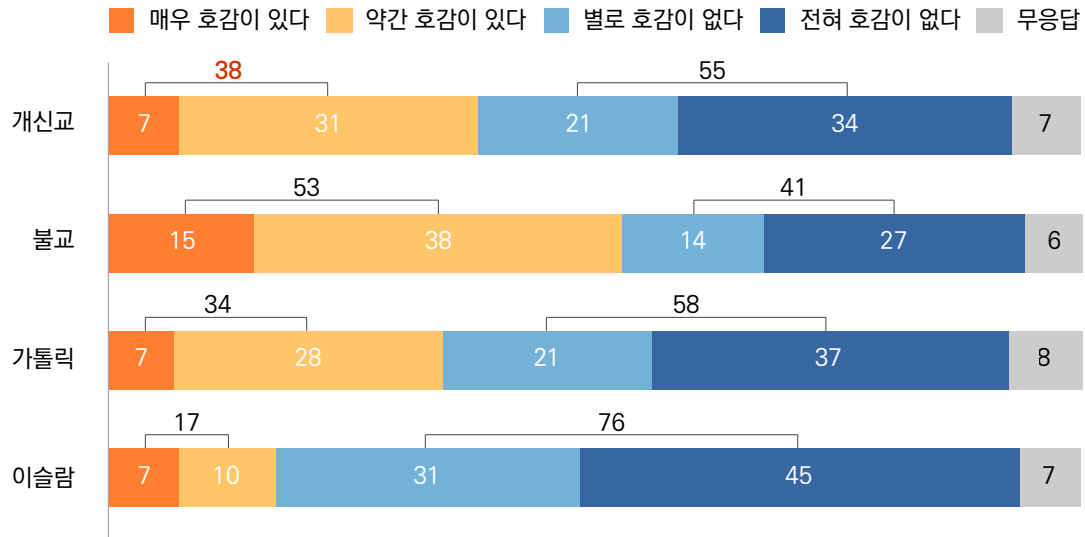
[그림] 이주 전 종교와 현재 종교 비교 (%)



◎ 이주민이 가장 호감을 갖고 있는 종교, ‘불교’ 53%!

- ▶ 이주민들의 호감이 가장 큰 종교는 ‘불교’(53%)였다. ‘개신교’(38%)는 ‘가톨릭’(34%)보다 다소 높았다.
- ▶ 불교 호감도가 높은 이유는 현재 믿고 있는 종교로 불교가 가장 많은 것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 ▶ 이주민 가운데 기독교 국가 출신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개신교 호감도가 38%나 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종교별 호감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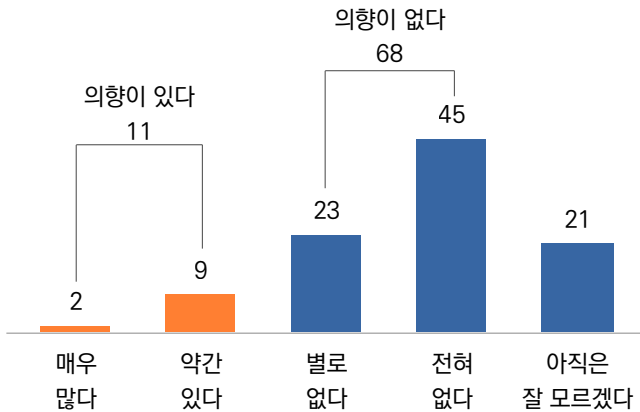


03

현재 종교 없는 이주민, 10명 중 1명만이 ‘앞으로 종교 가질 의향 있다’!

- ▶ 현재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무종교인들이 향후에 종교를 가질 의향이 11%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교 자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 이 결과는 한국에서 종교적으로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탈 종교화를 촉진했다는 의견을 뒷받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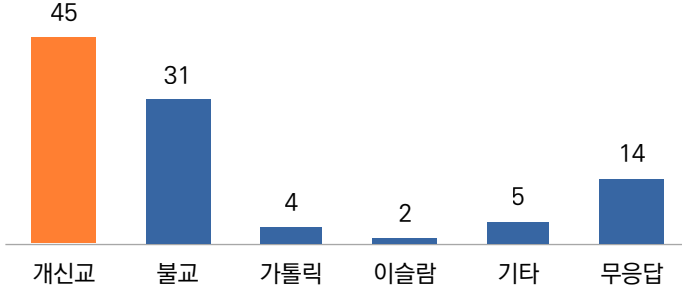
[그림] 무종교 이주민의 향후 종교 가질 의향 (%)



◎ 현재 종교 없는 이주민들이 믿고 싶은 종교, '개신교' 45%

- ▶ 한편 현재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추후 믿고 싶은 종교로는 '개신교' 45%, '불교' 31%, '가톨릭' 4% 등의 순으로 응답하여 개신교에 우호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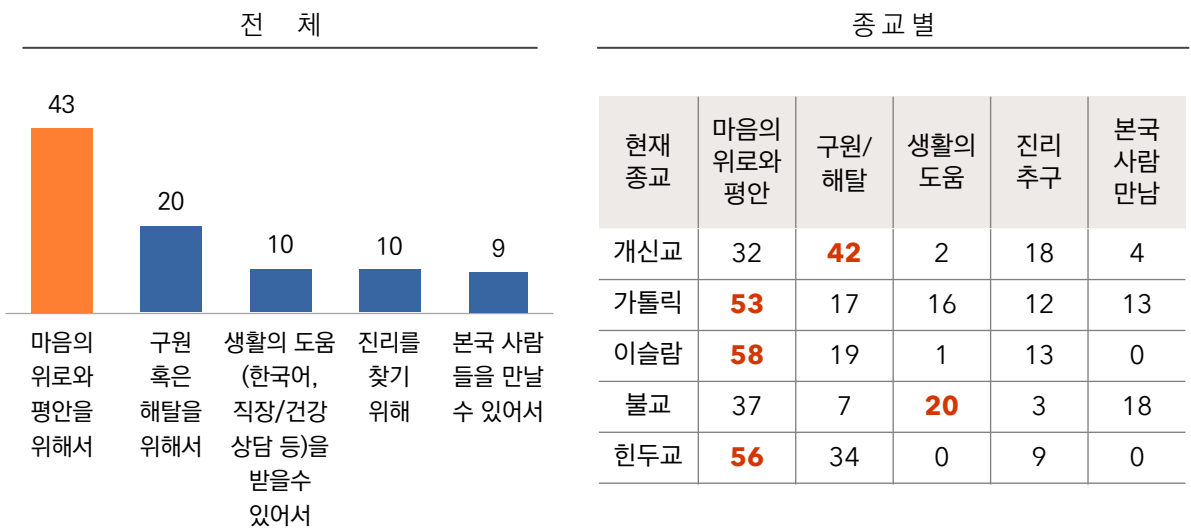
[그림] 현재 무종교 이주민이 믿고 싶은 종교 (한국에서 종교를 믿을 의향이 있는 자, %)



04 이주민이 종교 생활을 하는 주 이유, 종교가 도움을 주기 때문!

- ▶ 종교 생활을 하는 이주민들은 종교 생활을 하는 이유로 종교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인 '구원 혹은 해탈을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20% 밖에 되지 않았다.
- ▶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위해서'(43%), '생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10%)였다. 즉 종교의 궁극적 목적과 가치보다는 피곤한 현실로 인한 상처를 치유받고 외로운 한국 생활에서 의지할 곳이 되어 주기 때문에 종교를 믿는 것이다.
- ▶ 종교별로 보면 신앙생활의 이유가 차이를 보였는데 개신교인은 '구원 혹은 해탈을 위해서'(42%)를 가장 많이 꼽은 반면, 기타 종교인은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위해서'가 가장 큰 이유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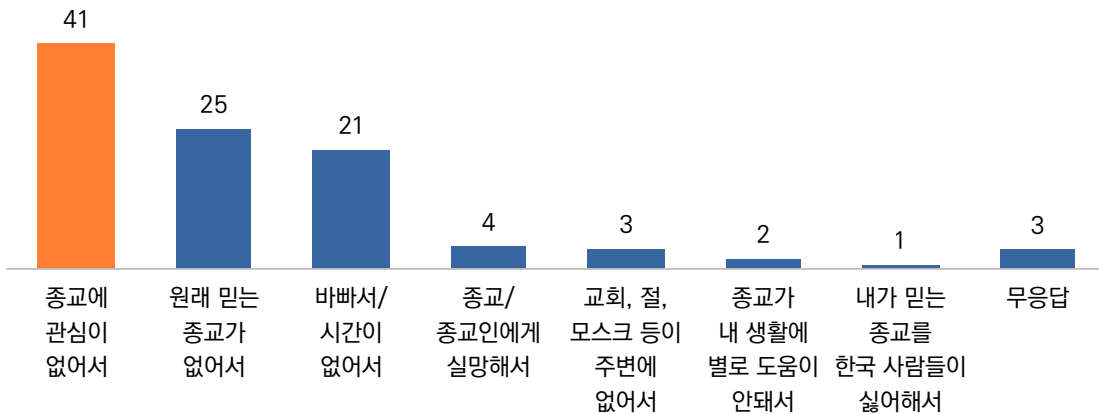
[그림] 종교 생활을 하는 이유 (현재 종교를 믿는 자, 전체/종교별, 상위 5위, %)



◎ 이주민이 종교를 믿지 않는 이유, ‘관심 없고, 바쁘다’!

- ▶ 한국에서 종교가 없는 이주민들은 종교를 믿지 않는 것이 ‘종교에 관심이 없기 때문’(41%)이었다. 여기에 더하여 ‘원래 믿는 종교가 없어서’(25%), ‘바빠서’(21%) 순이었다.
- ▶ 탈 종교화 현상을 기본으로 한국에서의 피곤한 생활로 인해서 종교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는 것이 겹치면서 종교를 믿지 않는 것이다.

[그림] 종교를 믿지 않는 이유 (현재 종교가 없는 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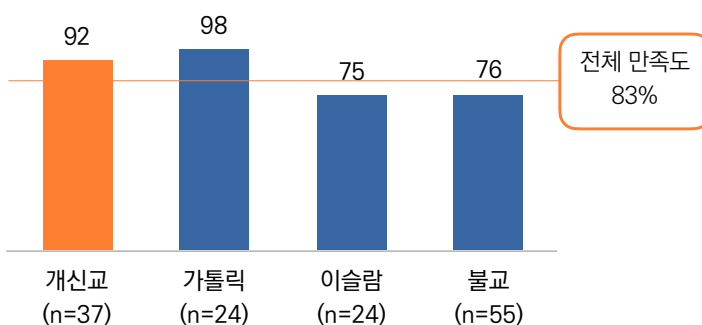


05

개신교 이주민의 신앙생활 만족도가 높다!

- ▶ 현재 신앙생활을 하는 이주민들 83%는 신앙생활에 만족했고 15%만이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해서 종교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 ▶ 그런데 개신교 이주민의 만족도는 92%로 평균보다 상당히 높았다.

[그림] 신앙생활 만족도 ('만족한다' 응답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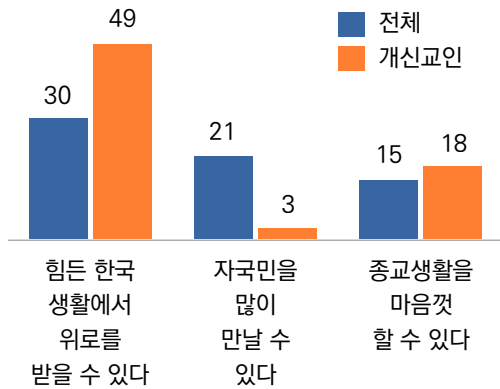


*4점 척도 질문으로 만족한다(매우+약간)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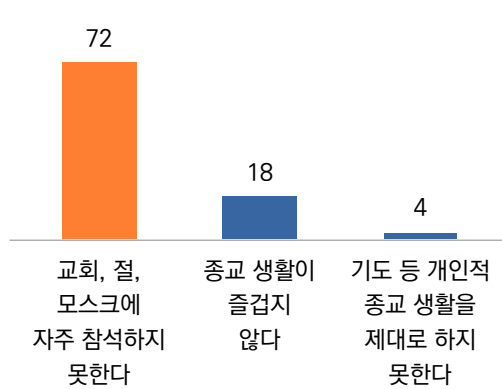
◎ 신앙생활의 만족 이유, 힘든 한국 생활에서 위로받을 수 있어서!

- ▶ 신앙생활에 만족하는 이유는 종교의 치유적 기능(30%), 그리고 커뮤니티 기능(21%) 때문이었다.
- ▶ 개신교 이주민의 만족 이유는 치유적 기능이 49%로 평균보다 매우 높는데 비해 커뮤니티 기능은 3%로 매우 낮았다. 이주민의 본국에서 개신교는 소수 종교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 ▶ 한편 신앙생활에 불만족하게 되는 것은 ‘교회, 절, 모스크에 자주 참석하지 못한다’(72%)는 이유가 절대적 이었는데 바쁘고 힘든 한국 생활로 인한 제약으로 볼 수 있다.

[그림] 신앙생활 만족 이유
(현재 신앙생활 만족하는 자, 상위 3위, %)



[그림] 신앙생활 불만족 이유
(현재 신앙생활 불만족하는 자, 상위 3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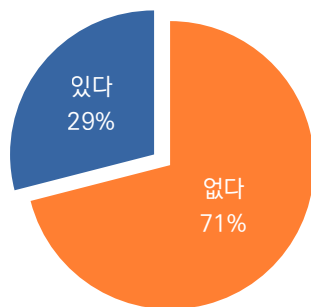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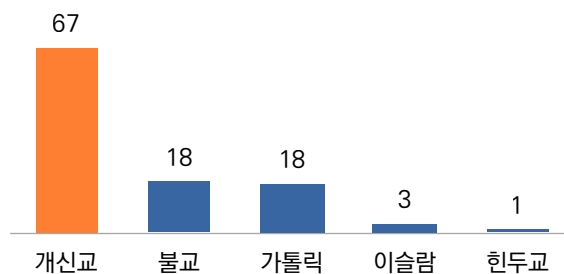
한국에서 전도 받은 적 ‘없다’ 71%!

- ▶ 한국에서 특정 종교로부터 전도 받은 적이 있는지 묻은 결과, 71%는 ‘없다’, 29%는 ‘있다’고 응답했다. 아직 전도를 받지 못한 이주민이 10명 가운데 7명이나 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 전도 받은 종교는 ‘개신교’가 67%로 기타 종교 대비 단연 높아 개신교의 전도 활동이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한국에서 전도 받은 경험



[그림] 한국에서 전도 받은 종교
(한국에서 전도 받은 경험 있는 자, 중복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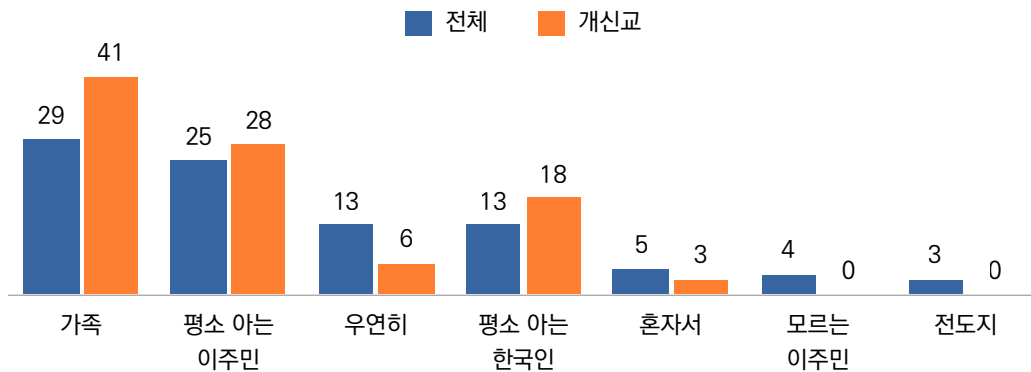


◎ 종교시설 방문하게 된 계기, '이주민 권유(전도)'로!

→ 이주민 통한 전도 전략 필요!

- ▶ 종교시설을 방문하게 된 계기는 '가족'(29%)이 가장 높지만 그에 못지않게 '평소 아는 이주민'(25%)이 높았다.
- ▶ 효과적인 전도는 이주민이 이주민을 전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주민이 스스로 종교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고 그들에게 전도와 선교 훈련을 시키는 것이 선교의 기본 원칙이다.
- ▶ 개신교 이주민의 종교시설 방문 계기는 '가족'이 41%, '평소 아는 이주민'이 28%로 응답됐다. 이주민을 통한 전도 강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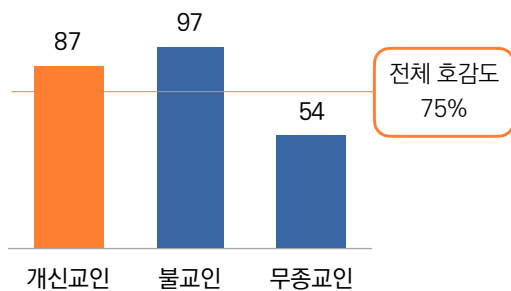
[그림] 종교시설 방문 계기 (현재 종교를 믿는 자, 상위 7위, %)



◎ 종교행사 참석 후 생긴 호감도, 75% → 종교행사 참여 유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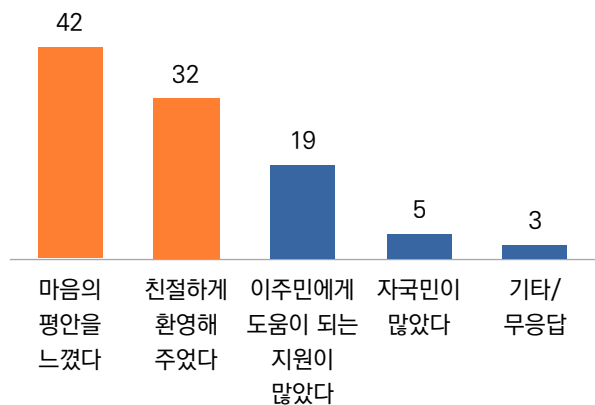
- ▶ 한국에서 전도 받아 종교행사에 참석한 이주민들은 종교행사를 경험하면 그 종교에 호감이 생기는 비율(75%)이 높았다.
- ▶ 호감 형성 이유는 '마음의 평안' 42%, '친절한 환영' 32%, '이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 많음' 19% 순으로 조사됐다. 이는 이주민이 첫 예배 참석 시 마음의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위기와 말씀, 친절한 환대가 교회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 종교행사 참석 후 호감이 생긴 비율을 종교별로 보면 개신교인은 87%, 불교인은 97%, 무종교인은 54%였다. 무종교인의 비율과 비교하면 종교 행사 후에 생기는 호감도가 높으면 종교를 믿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종교 행사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도 방법이다.

[그림] 종교행사 참석 후 생긴 호감도 (한국에서 종교행사를 참석한 적 있는 자, %)



*사례수 20명 이상 종교만 표기

[그림] 호감 형성 이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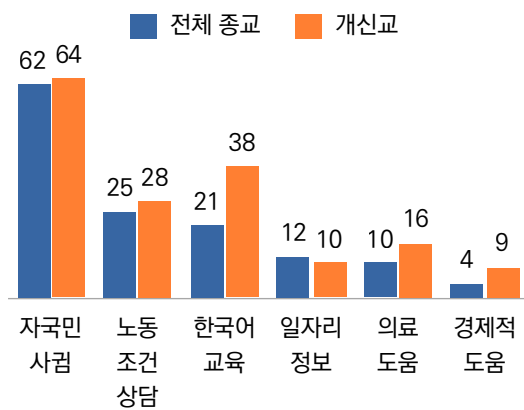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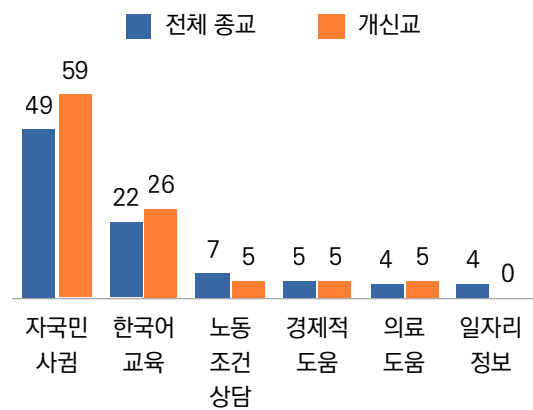
종교시설에서 제공하는 '한국어 교육'이 효과가 크다!

- ▶ 현재 출석하고 있는 종교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자국민 사قم'이 6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노동 조건 상담' 25%, '한국어 교육' 21% 등의 순으로 응답됐다.
- ▶ 이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로 '자국민 사قم' 외에 '한국어 교육'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 개신교는 다른 종교보다 한국어 교육을 더 많이 제공하고 있었으며 '자국민 만남'이 도움이 되는 정도가 컸다. 개신교 이주민이 각 나라에서 소수이므로 교회가 제공하는 만남의 기능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출석하는 종교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현재 종교를 믿는 자, 상위 6위, 복수응답, %)



[그림] 종교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가장 도움이 되는 서비스 (복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교시설 참석자, 상위 6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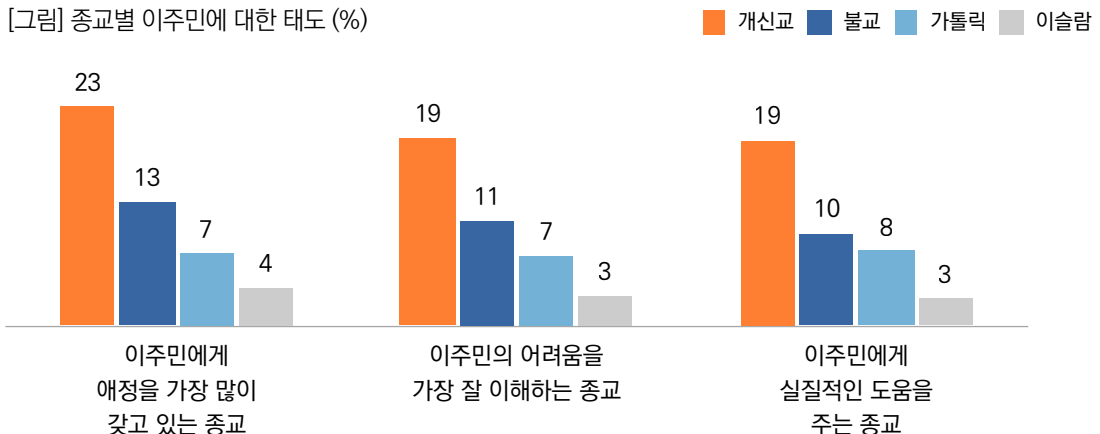


08

개신교가 이주민에게 가장 진정성 있는 종교이다!

- ▶ 이주민에게 애정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종교, 이주민의 어려움을 가장 잘 이해하는 종교, 이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종교 등 이주민에 대한 3가지 태도에서 개신교가 이주민에게 가장 우호적인 종교로 나타났다.
- ▶ 이는 개신교가 타 종교에 비해 적극적이고, 이주민의 니즈를 잘 파악하여 도움이 되는 선교 활동을 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종교별 이주민에 대한 태도 (%)



*모름/무응답은 표시하지 않음

시사점

세계화가 전 세계적 현상이 되면서 각 나라에는 이주민이 늘어나고 있다. 이주민은 대개 저개발국가에서 개발국가로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면서 발생했다. 못 사는 나라에서 온 이주민의 대부분이 차별을 받는 것은 어느 나라나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이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1960년대~1980년대에 일본으로, 독일로, 미국으로 넘어가서 노동을 하며 이주민이 되었다. 이들은 타국에서 인종 차별에 시달리며 그 나라 사람들은 거들떠보지 않는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온갖 고생을 하고 아껴 모은 돈을 한국으로 보내서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게 하고자 희생한 사람들이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주민은 2021년 기준으로 213만 명으로 우리나라 총 인구의 4%나 차지한다. 이들이 없으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건설 현장은 마비될 수밖에 없을 만큼 이주민이 우리 경제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심지어 농업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다고 한다. 농사철이면 베트남 등지에서 단체로 우리나라에 와서 농사일을 해서 돈을 벌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고령자만 남은 농촌에서 이들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주민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겪는 어려움이 많다. 처음 한국에 오면 말도, 문화도 달라서 적응하기 어렵고 외로움에 시달린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이 한국인이 기피하는 힘든 노동일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피곤에 찌들어 살며, 모처럼 쉬는 날이면 밀린 잠을 자거나 빨래를 하기 때문에 온전한 휴식을 갖기도 어렵다. 악덕 업주를 만나면 열악한 노동 조건에 시달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번 조사 분석에서 드러나듯이 이주민들이 종교를 믿는 이유, 종교에 만족하는 이유를 종합적으로 보면 이주민에게는 종교의 기능이 '구원/해탈'과 같이 종교의 궁극적 기능도 있지만 '위로와 평안', '자국민을 만나는 커뮤니티' 기능이 더 중요한 기능이었다. 여기에 더하여 종교 기관을 통해 '생활의 도움'을 제공하는 기능까지 있다. 즉 이주민에게 종교는 친구, 위로자, 상담자 그리고 이웃인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뿐 아니라 모든 종교가 부당한 대우와 외로움에 시달리는 이주민을 위한 선교에 나서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 내 이주민의 66%가 무종교인 것으로 밝혀졌다. 아직도 한국에서 한 번도 전도나 포교를 받아본 적이 없는 이주민이 무려 71%나 되었다. 10명 중 7명의 이주민이 아직도 전도를 받아보지 않았다는 것은 미전도 종족이 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도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주민 중 개신교 비율은 8%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인 성인 기준 17%(한국갤럽 2021년)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다. 다행인 것은 이번 조사에서 다른 종교보다 기독교가 이주민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종료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이주민 대상 기독교의 전도 환경이 나쁘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가 이주민 선교를 할 때 유의해야 할 것이 있다. 왜 이주민 선교를 해야 하는가 하는 선교 동기 혹은 목적의 문제이다. 우리가 자칫 설부른 선교에 나설 경우, 이주민을 선교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잘못을 범할 가능성이 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도운 데서 알 수 있듯이 선교의 기본 동기와 목적은 '사랑'이다. 사랑의 동기가 없는 선교는 실적에 급급하고, 이주민을 실적 달성의 대상으로만 여길 뿐이며 그들의 깊은 결핍과 욕구를 채워 주려는 마음보다 그들을 교회당을 채울 대상으로 여길 뿐이다. 따라서 진정한 이주민 선교는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선교이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이번 조사 프로젝트의 재정적 지원과 함께 공동으로 참여한 안산 제일교회의 경우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외국인 사역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몇 해 전 네팔인들을 전도해서 훈련시켰는데, 이들이 귀국한 후 지역사회에서 매우 역동적인 기독교 활동을 하는 것을 교회의 선교팀이 네팔을 방문했을 때 확인할 수 있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 연구팀에게 전해왔다. 이제 해외 선교와 관련 선교사를 파송하는 방법 이외에 국내 이주민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우회적 방법이라는 또 하나의 선교활동을 활성화시킬 때인 것 같다.

1.[한국인의 이주민 인식]

2.[맞벌이 vs 비맞벌이 가구 비교]

이번 호 메인 주제로 ‘한국 내 이주민의 종교실태’를 다뤘는데, 이번 소주제로는 최근 발표된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이주민 인식’(한국리서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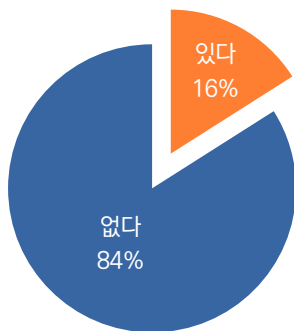


우리 국민 10명 중 7명(72%), 이주민이 나의 이웃이 되는 것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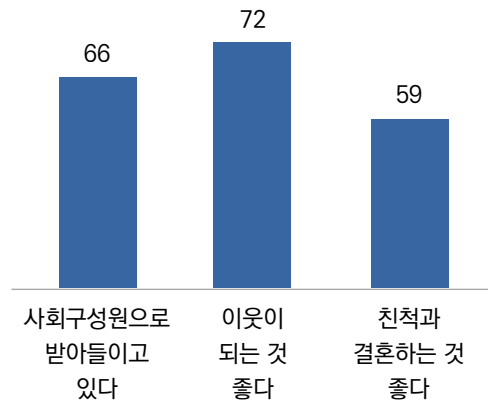
- ▶ 최근 한국리서치가 발표한 ‘이주민 수용도 및 인권 의식 조사’ 리포트에 따르면 우리 국민 중 이주민(결혼 이주민, 이주 노동자) 지인을 둔 비율이 16%로 나타나 6명 중 1명은 생활 속에서 직·간접적으로 이주민과 관계 맺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 ‘이주민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을 때 66%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나의 이웃이 되는 것’에 대한 긍정적 응답률은 72%로 조금 더 높았다. 다만 ‘친척과 결혼하는 것’(59%)에 대해서는 이웃이 되는 것 대비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13%p 낮아 가까운 가족 관계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부담감과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지인(가족, 이웃, 친구) 중 이주민 존재 여부

결혼 이주민, 이주 노동자 지인 있다



[그림] 이주민 관계에 대한 인식 (동의율, %)**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 여론, 이주민 수용도 및 인권 의식 조사, 2022.12.07 (2022년 현재 국내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6,148명, 면접조사, 2022.07.01.-09.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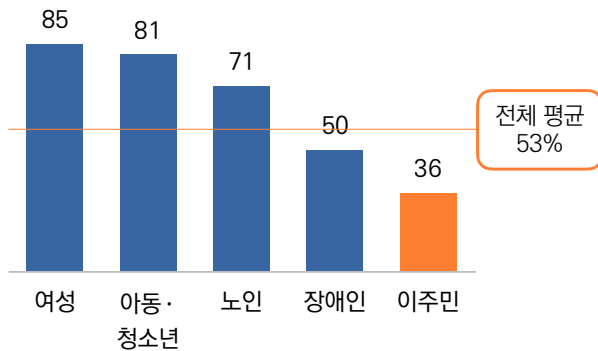
참조) 원자료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22년 인권의식실태조사, 2022.11.29.

**4점 척도 질문으로 그렇다(매우+조금)/ 좋다(매우+대체로)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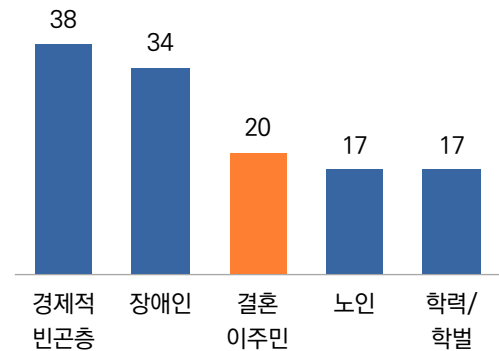
◎ ‘이주민의 인권이 존중된다’ 36%, 사회적 약자/소수자 5개 집단 중 최하위 기록!

- ▶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절반을 약간 웃도는 수준(53%)이었다. 사회적 약자/소수자 중 ‘이주민’의 인권이 존중된다는 응답은 36%로 5개 집단(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민) 가운데 가장 낮았고, 전체 평균에도 한참 미치지 못했다.
- ▶ 한편 우리나라에서 인권 침해나 차별을 많이 받는 집단을 물은 결과, ‘결혼 이주민’(20%)이 ‘경제적 빈곤층’, ‘장애인’에 이어 3위에 랭크된 점이 주목된다.

[그림]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 존중도
(‘존중된다’ 응답률, %)**



[그림] 인권침해 차별 취약집단
(2개 복수선택, 상위 5위, %)



*자료 출처: 한국리서치 여론속의 여론, 이주민 수용도 및 인권 의식 조사, 2022.12.07 (2022년 현재 국내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6,148명, 면접조사, 2022.07.01.~09.16)

참조) 원자료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22년 인권의식실태조사, 2022.1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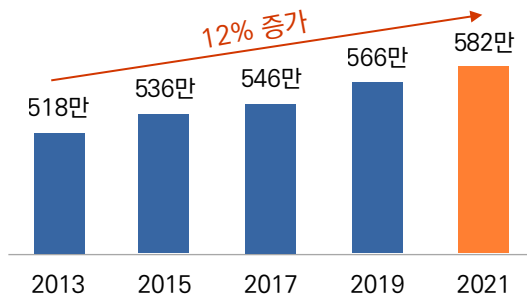
**4점 척도 질문으로 존중된다(매우+존중되는 편)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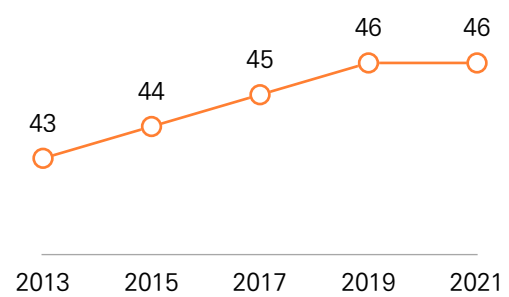
맞벌이 가구 2013년 이후 12% 증가, 유배우자 가구 중 맞벌이 가구 비중은 46%!

- ▶ 통계청이 매년 상·하반기에 발표하는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맞벌이 가구는 582만 가구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이를 보이며, 2013년 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 배우자가 있는 가구 중 맞벌이 가구 비중은 46%로 조사돼,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40%중반 대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맞벌이 가구 수 연도별 추이 (가구)



[그림] 유배우자 가구 중 맞벌이 가구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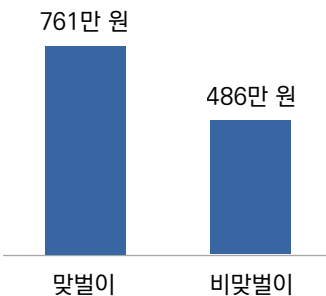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중앙일보, '맞벌이 가구 비중 46.3% 역대 최대, 월평균 761만원 번다' 기사 참조, 2022.11.02.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14202#home>)
 **원자료 출처 : 통계청 KOSIS, '2021 지역별 고용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S4F01S&conn_path=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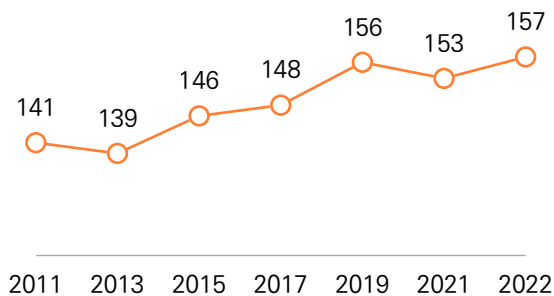
◎ 맞벌이 vs 비맞벌이 가구, 월평균 소득 격차 1.6배가량 차이!

- ▶ 맞벌이 가구와 비맞벌이 가구의 월평균 소득(2022년 2분기 기준)을 보면,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761만 원, 비맞벌이 가구 486만 원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올 2분기 '비맞벌이 가구' 대비 '맞벌이 가구'의 소득 비율은 157%로 나타났는데, 이는 맞벌이 가구가 비맞벌이 가구보다 1.57배 소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지난 10년 동안 '맞벌이 가구'와 '비맞벌이 가구'간 소득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 2022년 2분기 월평균 소득



[그림] 비맞벌이 대비 맞벌이 소득 비율 (연도별 2분기 기준, %)**



*자료 출처 : 중앙일보, '맞벌이 가구 비중 46.3% 역대 최대, 월평균 761만원 번다' 기사 참조, 2022.11.02.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14202#home>)
 **원자료 출처 : 통계청 KOSIS, '2022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L9V012&conn_path=12)
 ***맞벌이 월평균 소득/비맞벌이 월평균 소득 ×100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523호\(2022년 12월 2주\)](#)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정당 지지도, 정계 주요 인물 개별 호감 여부, 정부의 노동계 파업 대응 평가 등

◎ 사회 일반

[2021년생 기대수명 83.6살...2001년생보다 7년 더 산다](#)

한겨레_2022.12.06.

[‘100세 정년’ 회사도 나왔다... 몇 살까지 일하실래요?](#)

조선일보_2022.12.09.

[3집 중 1집은 ‘나 혼자 산다’...2050년엔 40% 달한다](#)

한겨레_2022.12.07.

[아이 없는 맞벌이 신혼부부 계속 늘어](#)

경향신문_2022.12.12.

[“저출산-고령화...한국, 2075년 경제규모 필리핀보다 작아질 것”](#)

동아일보_2022.12.11.

["작년 오프라인 서점 매출 전년 대비 19.5% 증가"](#)

연합뉴스_2022.12.08.

[작년 직장인 평균연봉 4천24만원...‘억대 연봉’ 100만명 돌파](#)

연합뉴스_2022.12.07.

[‘심심한 사과’ ‘사흘’ 문해력 논란...청년만의 문제 아니다](#)

중앙일보_2022.12.05.

[부모들이 뽑은 효자정책은 '○○○○'...최우선 과제는 '부모급여'](#)

노컷뉴스_2022.12.07.

[태극전사가 소환한 '중꺾마'... "올해 최고의 명언"](#)

연합뉴스_2022.12.06.

[“국민 10명 중 6명 여성 대상 적극적 조치 모른다”](#)

여성신문_2022.12.11.

[올해의 사자성어 '과이불개'...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

연합뉴스_2022.12.11.

[‘공감·보살핌’ 못받으면 치매 발병 위험 높다... 여성 위험 61% ↑](#)

여성신문_2022.12.12.

[인플레이션: '월급 빼고 다 오르네'... 직장인도 자영업자도 실질소득 줄었다](#)

BBC NEWS 코리아_2022.12.12.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2022년 올해를 빛낸 인물 (한국갤럽)]

[1\) 스포츠선수 \(최근 16년간 추이 포함\)](#) _2022.12.08.

[2\) 예능방송인·코미디언 \(최근 16년간 추이 포함\)](#) _2022.12.12.

◎ 청소년 / MZ세대

[메타버서서 놀며 영상 제작까지... 플랫폼 '신인류' 초등생들](#)

국민일보_2022.12.09.

["갑자기 숨이 안 쉬어져요" 2030 위협하는 공황장애](#)

매일경제_2022.12.06.

◎ 경제 / 기업

['직장 상사·부하 직원 간 연애 금지 사규' 직장인 72% 찬성 왜](#)

서울신문_2022.12.11.

[월급 빼고 다 올랐다...임금근로자 3분기 실질소득 5% 급감](#)

연합뉴스_2022.12.12.

◎ 건강

[당신의 뱃살이 노리는 장기 '대장'... '젊은 대장암' 발병률 1위 한국](#)

매일경제_2022.12.09.

["고혈압 관리 첫걸음 '가정혈압'...환자 3명 중 1명만 잤다"](#)

연합뉴스_2022.11.30.

◎ 국제

[EU 시민 과반 "한국 긍정적"...'한류 영향' 젊은층·여성 관심 커](#)

연합뉴스_2022.12.09.

[전세계 여성, 10년전보다 더 화났다...'남성보다 분노 더 느껴'](#)

연합뉴스_2022.12.07.

[우크라이나 장기화에 '지원 찬성' 미국인 50% 이하로 떨어져](#)

연합뉴스_2022.12.06.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기독교 / 종교

[한국 '긴 세대' 3040...“MZ세대보다 신앙침체 심각”](#)

크리스찬타임스_2022.12.11.

[“개신교 긍정적” 20% 그쳐... 신뢰 회복 급하다](#)

더미션(국민일보)_2022.12.08.

[코로나 직격탄... 감리교인 2020년 이후 10만명 급감](#)

더미션(국민일보)_2022.12.07.

◎ 이슈 큐레이션

[특정집단 향한 공격과 조롱... ‘폭력’이 된 포털 뉴스 댓글](#)

국민일보_2022.12.09.

|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림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노량진교회, 다운교회, 당진동일교회, 대전선창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맑은샘교회, 문호교회, 미디어이더교회, 밀양남부교회, 부천명성교회, 베다니교회, 빛과소금교회, 사랑감리교회, 상도중앙교회, 삼천포교회, 상암교회, 서대문교회, 서영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중앙교회,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새에덴교회, 세광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양감리교회, 에덴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예은교회, 예하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류교회, 올리브교회, 울림교회, 원동교회, 은평교회, 이룸교회, 일동동부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안장로교회, 지구촌교회, 진주삼일교회, 진주성결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대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천주교수원교구 호계동 성당

|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감리회 삼남연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선교회불재단, 기아대책, 마을학연구소, 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아시아미션, 서대문ESF, 서울노회아동부연합회(예장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목회, 한빛누리, 한일연합선교회, CBMC 광주지식포럼, CBMC 행복한지회, CCC 사역연구소, GoodTV, IFCJ 가정의 힘(가나다 순)

| 후원 기업 |

(주)가인지캠퍼스, (주)그랑블루, (주)리서치랩, 메가리서치, (주)삼신테크, 스페이스허브, (주)시스코프,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든건강과학, (주)참물류, (주)하츠/(주)벽산 (가나다 순)

| 후원 개인 |

가우진, 강영원, 강정남, 고영관, 고영수, 고인구, 고재환, 고현권, 구봉관, 구영생, 구정오, 금교성, 권순홍, 김고은, 김관상, 김기혁, 김동찬, 김동하, 김명준, 김상래, 김상로, 김석철, 김성열, 김성민, 김성식, 김성은, 김숙정, 김시은, 김영철, 김영훈, 김용선, 김윤철, 김윤환, 김은선, 김은진, 김인수, 김종천, 김재욱, 김주형, 김지한, 김 찬, 김현오, 김형태, 김호아, 김홍일, 김흥기, 계만석, 나광균, 나윤만, 남기환, 남도현, 남성태, 노기환, 류선자, 류지성, 문성준, 박건호, 박노석, 박명규, 박미경, 박상윤, 박세용, 박영철, 박영호, 박재찬, 박종철, 박종현, 박준상, 박준하, 박지훈, 박진철, 박찬주, 박철호, 박현우, 박형철, 박홍래, 반기민, 반상명, 방승기, 변형석, 배수정, 백인범, 백인철, 서경복, 서기원, 서연우, 서영진, 서우정, 서은영, 서재승, 서해현, 석승호, 석진호, 선원규, 성창민, 송으뜸, 신명자, 신인순, 신지현, 심기식, 안요한, 안정호, 안태근, 양수민, 엄정석, 여삼열, 오강일, 오수철, 우애라, 유성민, 유승우, 유영민, 유형창, 윤동하, 윤여민, 윤영조, 윤치호, 윤홍경, 이경만, 이경선, 이국희, 이광호, 이대식, 이만민, 이미경, 이병희, 이삼열, 이상호, 이성근, 이성수, 이성진, 이승철, 이영선, 이완중, 이요셉, 이윤찬, 이은라, 이인성, 이일영, 이재열, 이정규, 이정아, 이주일, 이지형, 이창현, 이창형, 이춘봉, 이 현, 이현구, 이현식, 이형근, 이호택, 이훈희, 이희석, 임성빈, 임현주, 원하나, 장명희, 장병우, 장부식, 장성진, 장우성, 장재영, 장형철, 전근영, 전병철, 전용림, 전치영, 정기목, 정부활, 정용철, 정종권, 정종섭, 정 준, 정하규, 정희수, 조병길, 조용민, 조의환, 조준환, 조창오, 주학선, 지도환, 지연희, 지용선, 지중배, 진범수, 지현일, 차용현, 차원숙, 천성환, 최명영, 최명호, 최상도, 최상헌, 최용기, 최은아, 최 준, 최준혁, 최태영, 최항재, 최현갑, 한동준, 한병록, 한재웅, 한진광, 한홍근, 함용태, 호재민, 홍의숙, 홍현풍, 황태기, Clara Yoon(가나다순)

| 신규 후원 |

(사)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이성득, 노현민, 박진규, 장명철, 장준영, 이재혁, 한영숙, 김성현, 박지혜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일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후원 방법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 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 미션 |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협력기관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 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 섬기는 이들 |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전 원장)

| 만든 이들 |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민선영, 유영민, 송예슬, 김찬솔, 한미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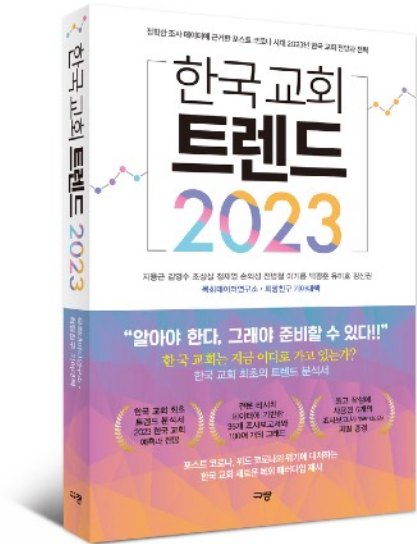
| MOU 기관 |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아미션, 크리스찬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일연합선교회

미주지역 :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 연구소 소식 1. 연구소 업무 협약 체결 |

- 2022년 12월 6일 본 연구소는 (재)하나복네트워크(김형국 목사) 그리고 한국교회 선교연구소(황병배 소장)와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앞으로 한국 교회와 기독교를 더 잘 섬기는 기회로 삼아 세 기관이 더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 연구소 소식 2. 「한국교회 트렌드 2023」 출간 |

- 목회데이터연구소와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공동으로 조사 데이터에 근거하여 한국교회의 트렌드를 진단하고 예측한 「한국교회 트렌드 2023」 책을 지난 9월 15일 국내 최초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목회 계획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부록으로 원고 작성을 위한 6개 조사보고서를 드립니다.)

보도 자료

책 구입 안내